한국 불교미술 중추 '일섭 佛母' 한자리에

제4회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
8월 17~23일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9월 1일~10월 10일 송광사 성보博

회화 · 조각 등 회원 100여 작품 전시
일섭 스님 '영산회상도 처음 선보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단법인 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허길량)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제4회 일섭문도전 -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인 금용 일섭 스님의 맥을 잇고 있는 일섭문도회는 2012년부터 3년마다 100여 명의 문도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여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시를 열지 못했다. 2018년 제3회 전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일섭 스님의 칠곡 대원사 석가모니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허길량의 '관세음보살문도', 전연호의 '하동칠불도 등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회원들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또한 전통예술부터 미디어아트까지, 일섭 스님이 남겨놓은 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계승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일섭문도회는 9월 1일부터 송광사성보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10월 10일까지 2차 전시를 개최한다.

△일섭 스님의 '영산회상도(243×170cm, 1959)'는 현재 칠곡의 대원사로 옮기기 전 대구 남산동 대원사에 모셨던 후불탱화로 석가모니와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 등 4보살을 모시고 사천왕과 제석천왕, 대범천왕을 외호대중으로 하여 10대 제자를 위쪽으로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허길량(前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의 '관세음보살(69×89×221cm, 느티나무)'은 중생들의 발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관세음보살을 구현한 작품이다.

△전연호(대구시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보유자)의 '하동칠불도(96×186cm)'는 대형 괘불을 1/50로 축소한 미니어쳐로,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득도한 하동칠불을 중심으로 김수로왕, 허황옥, 장유화상, 거등왕 그리고 김해 허씨를 받은 둘째와 셋째 왕자까지 묘사하여 하동칠불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일섭 스님의 '영산회상도', 현재 칠곡의 대원사로 옮기기 전 대구 남산동 대원사에 모셨던 후불탱화로 석가모니와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 등 4보살을 모시고 사천왕과 제석천왕, 대범천왕을 외호대중으로 하여 10대 제자를 위쪽으로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금용 일섭 스님(1900~1975)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금호 약효 스님, 보응 문성 스님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 근대 불교미술 중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으며, 불화, 개금, 단청, 조각 등 다양한 방면에 두루 능통하여 금어(金魚)라는 명칭을 받았다. 일섭 스님은 일생 동안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가부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대원사 삼존불 목조상 등 남으로는 제주부터 북으로는 함흥 영변까지 전국의 주요 사찰에 불화와 단청, 불상조각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1975년 입적할 때까지 500여 차례의 불사에 참여했다.

또한 제자들의 불사현장 참여 등을 통해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한국 불교미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불교미술일섭문도회는 일섭 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불화와 단청, 조각, 공예, 고건축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허길량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3명의 회원이 전현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많은 회원들이 문화재수리기능자,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도회는 금호 약효 스님이 주석하던 공주 계룡산파 마곡사에 불모비림을 조성해 보응, 일섭 스님, 우일 스님 등의 행적을 기록한 비를 통해 선대를 기리고, 전통을 후세에 계승하는 사명을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품전

10월 10일까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으뜸상-이지수(황남초 4), '석조미륵여래 삼존상'

국립경주박물관은 10월 10일까지 어린이박물관 내 특별전시실에서 제38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경주박물관이 주최한 '제38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작품 160점을 선보인다. 최고상인 으뜸상은 '석조미륵여래 삼존상'을 그린 이지수(황남초 4), '사로국의 갑옷 입은 말'을 그린 이형우(문덕초 5), '여러 모양의 토우장식 목항아리'를 그린 손지혜(황성초 3)가 수상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우리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림을 통한 창의적 표현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198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 대회는 국립경주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전시된 문화재를 감상한 어린이들이 5월 18일(세계 박물관의 날)부터 10일간 그리기 재료를 선착순으로 받아 작품을 완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했다. 전국의 어린이들이 551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의 참여가 많았다. 그림은 문화재 묘사, 문화재 상상화, 박물관 풍경화, 세 가지 표현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도화지나 한지에 채색화나 수묵화로 그린 작품들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시를 감상하는 어린이들 모두가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재 속 이야기를 창작으로 이어가며 더욱 선현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054)740-7547

박재완 기자

'우리 조각' 전승한 父子 조각장을 기억하며…

'정(釘)으로 맥(脈)을 새기다' 展
8월 2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조각장 故 김정섭·김철주 조명
사리함 등 작품·50여 점 선보여



김정섭 · 김철주 부자가 제작한 사리함.

조각장 보유자 故 김정섭(1899~1988)과 故 김철주(1933~2015)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6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1에서 사라지지 않는 빛-작은 전시 '정(釘)으로 맥(脈)을 새기다'를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작고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기리고자 2018년부터 매년 소규모 전시를 열어오고 있다.

김정섭과 김철주는 2대에 걸쳐 사라져가는 조각 기술을 전승하며 탁월한 솜씨와 예술성으로 경지를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고가의 은을 대신하여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사용하는 등 시대를 앞선 시도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전시는 △'조각장의 공방', △'조각장 김정섭 · 김철주', △'금 · 은 · 동의 조화', △'아름다움을 새기다'로 구성되며, 김정섭과 김철주의 작품과 도구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조각장의 공방'에서는 김정섭과 김철주가 함께 작업하던 1970~1980년대 공방을 재현하여 조각 도구와 재료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조각장 김정섭 · 김철주'에서는 두 작가의 조각장으로서의 삶과 예술적 사상을 보여준다. '금 · 은 · 동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새기다'에서는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한 은제오동상감 향로, 사리함 등의 작품을 전시하여 그들의 솜씨와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조각장'은 금속 표면을 두드리거나 깎아 무늬를 새겨 장식하는 기술이나 그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조각장'은 1870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1970년 김정섭이 처음 보유자이다. 그 명맥은 초대 보유자 김정섭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보유자 김철주로 이어졌다. 1989년 보유자가 된 김정섭은 이왕직미술작품제작소 출신의 조선시대 마지막 금속조각장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부친의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김철주 역시 김정섭이 인정했을 만큼 뛰어난 조각장이었다.

개막 이후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시 소개 영상을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유튜브(www.youtube.com/c/국립무형유산원)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063-280-1467

박재완 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